

유럽 애니메이션 산업 일시적 하락세

수요 줄고 경쟁은 격화된 탓...안전지향의 제작관행 '대세'

유럽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일시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상태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TV 채널들의 프로그램 제작예산은 감축된 데 반해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적응 과정상의 진통이라 보여진다. 지난 수년간 제작이 늘면서 시장에는 유례 없이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유입됐다.

하지만 새로운 작품들이 경쟁해야 하는 상대는 오히려 수년 전에 제작된 작품들인데, 배급사들이 갖추고 있는 구 프로의 카탈로그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7~20일 이탈리아바레세에서 개최된 제14회 카툰 포럼을 통해 유럽 애니메이션 업계의 최신 동향을 전한다. <편집자>



카툰 네트워크가 투자하는 아드만 스튜디오의 신작 <츰사키 축스(Chopsoky Chooks)>

올해는 알프스산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바레세(Varese)에서 유럽 지역 애니메이션 마켓인 카툰 포럼(Cartoon Forum)이 개최됐다.

어린이 대상 모험물과 코미디물이 주류

108명의 방송사 관계자들 외에도 154명의 기타 투자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총 82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이 프로젝트들을 모두 제작, 방영하려면 총 2억 8,500만 유로의 제작예산과 503시간의 방영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는 총 14개국이 참가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영국이 21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두를 점했으며, 이탈리아(17개)와 프랑스(16개)가 뒤를

이었다. 놀랍게도 독일은 단지 6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그쳤다. 독일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최근에 제작이 급속히 늘어났던 관계로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몇몇 메이저 제작사에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한편 15~30분 길이의 시리즈물이 역시 지배적이었지만,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이보다 짧은 10~13분 분량의 작품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카툰 포럼이 영국 웨일스(Wales)에서 개최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제작 규모와 함께 제작비도 줄었다. 분당 제작비를 계산해 보면 2002년에는 1만 555유로였던 것이 지금은 9,146유로로 떨어진 것이다. 프로듀서들이 애니메이션 업계의 경기 악화로 안전 지향의 연출과 제작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5~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험물이나 코미디물이다. 성인이나 한정된 관객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작품들은 산업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군소 스튜디오들에서 공략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다.

2004년 유럽연합에 10개국이 새로 가입한다는 사실이 벌써부터 그 영향력을 발휘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올해 카툰포럼에서 발표됐다. 카툰의 운영감독인 코린 제나트(Corinne Jenat)와 마크 윈드 웨이어(Marc Wandeweyer)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제작비 조달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과거에 비해 방송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 조성이 더욱 다각적이고 복잡한 임무가 되어 버렸다”고 그들은 말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업계가 이같은 현실에 적응해가고 있다고 보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문화산업의 경우 경계를 넘나드는 공동 작업이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투자 파트너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카툰 포럼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유럽인의 시각적 무의식을 지배하는 미국

올해 발표된 신규 프로젝트들은 작품의 주제와 기술, 대상 관객층의 폭이 매우 넓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서 상영될 수 있게끔,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국수적인 특징을 배제하고 중도를 지키는데 유의하고 있다.

이 범유럽적인 작품들의 우스운 점은 그것이 폭넓은 유럽 관중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방법에 있다. 많은 시리즈물의 배경이 TV나 영화, 만화책을 통해 유럽인들에게 익숙해진 미국의 마을이나 거리를 닮아 있는 것이다! 미국은 시각적 무의식을 완전히 식민화해 버릴 정도로 유럽인들의 공통분모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카툰 네트워크 같은 미국 채널들이 유럽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미국인들이 투자하거나 재정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면 그 시리즈가 미국적으로 보여야 함은 당연하다. 미국인들은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이다.

카툰 네트워크는 2003~2007년까지 향후 5년간 해외 작품의 공동 제작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유럽에서 이들의 공동제작 재정 부담율은 25% 가량 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30~4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아드만의 신작 츄사키 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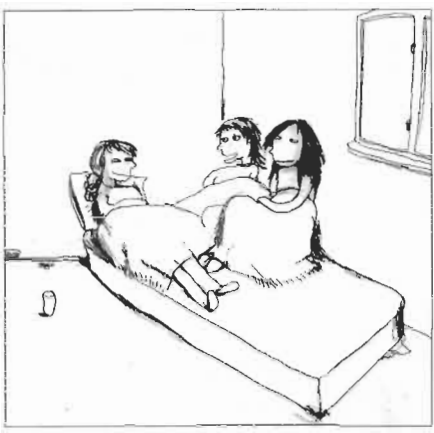
카툰 네트워크가 투자하는 제작물 중 하나는 영국 아드만(Aardman) 스튜디오의 <츄사키 축스(Chopsoky Chooks)>이다. 카툰 네트워크 유럽의 핀 아네슨(Finn Amesen)은 이 작품의 강점은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 액션 코미디라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츄사키 축스는 쿵푸에 능한 닭 세 마리, 대형 쇼펍센터의 악당 와사비 박사에게 맞서 싸운다. 캐릭터들은 캐리커처 같은 느낌이며, 적어도 이 3D TV 시리즈의 파일럿 편은 화려한 쿵푸 액션을 자랑하고 있다. 아드만의 프로듀서 마일즈 벌로우(Miles Bullough)는 이 시리즈가 “보편적”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쇼펍 물은 있으며, 이 작품의 유머는 캐릭터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작품은 여러 나라의 스튜디오에서 나눠 제작되며, 30분물 1편에 38만 유로의 제작비가 책정되어 있다.

성인층 겨냥한 노르웨이의 소녀들

<츄사키 축스(Chopsoky Chooks)>와는 상당히 다른 프로젝트가 노르웨이 마이크로필름(Mikrofilm)의 <지저분한 소녀들(Grubby Girls)>이다. 마이크로필름은 기업이라고보다는 가내 수공업에 가까운 작은 스튜디오지만, 덕



노르웨이 마이크로필름(Mikrofilm)의 <지저분한 소녀들(Grubby Girls)>

분에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었던 듯하다.

<지저분한 소녀들>은 잉가 사에트레(Inga Sætre) 원작으로, 인생의 온갖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세 소녀를 그린 만화를 토대로 한 작품이다. <지저분한 소녀들>은 젊은 여성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놀라운 일에 부딪힌다는 점에서 다니엘 클로우즈(Daniel Clowes)의 만화책 <유령 세계(Ghost World)>와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또 그림 일기처럼 조금은 서툴고 또 동시에 친밀감을 주는 그림체로 되어 있지만, 대사와 구상 자체가 뛰어나면서도 적절해 전체적으로 좋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마이크로필름은 용감하게도 2분 30초라는 매우 드문 길이의 에피소드 26편으로 구성되는 시리즈물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성인층을 겨냥한 작품이므로 잡지 타입의 프로그램에 편성하기에 적당해 보인다.

단순해서 돋보이는 독일 시리즈 톰

페스티벌에서 많은 상을 석권한 애니메이션 <불의 링(Ring of Fire, 2000년작)>으로 유명한 독일인 안드레아스 하이카데(Andreas Hykade)는 지금 매우 독창적인 5분물 26편의 시리즈물 <톰(Tom)>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중 4편은 이미 완성됐다.

모든 에피소드의 기본 줄거리는 같다. 톰은 꿀 바른 딸기잼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 그것을 가지러 가는 길에 제빵업자, 꿀벌, 딸기 쥐와 쥐의 엄마를 만나게 된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훌륭한 구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품은 매우 전문가답고 다른 메이저 프로덕션과 경쟁할만한 수준이지만, 독일 스튜

트가르트(Stuttgart)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소수의 인원이 전량을 제작한다. 하이카데가 시나리오와 캐릭터 디자인, 연출 등 작품의 전과정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일 터이다.

<톰>은 굵은 검정색 선과 밝은 칼라를 사용해 시각적으로도 단순하지만, 그것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들에게는 보기 쉽고 어른이 보기에 재미나다.

아이슬란드에서 온 사악한 침대

아이슬란드 회사 카오즈(Caoz)의 프로젝트 <애나 앤 더 무즈(Anna and the Moods)>는 오늘날 작은 나라에서도 어떻게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아이슬란드는 전 인구를 통틀어도 28만명에 불과하며 애니메이션 산업이 자리잡힌 나라가 아니다.

<애나 앤 더 무즈>는 침대가 되어 가는 한 소녀를 그린 30분 길이의 TV 애니메이션이다. 친절하고 귀여운 애나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사악한 침대로 변하고, 놀란 부모는 그녀를 아트만 박사에게 데려가지만, 박사에게도 뺨쪽 한 수가 없어 그저 기다리라는 처방뿐이다.

대본은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인 셴(Sjon)이 썼는데, 국제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라스 폰 트리에의 장편 영화 <어둠 속의 댄서> 역시 그의 작품이다. 셴은 “우리 대부분은 애나 같았거나 애나 같은 자매가 있었고, 혹은 애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보편성을 찾는다.

이 작품은 음악 쇼처럼 구상되어 있다. 영국의 브로드스키 콰텟(Brodsky Quartet)의 지원으로 셴이 줄거리를 썼고 영국인 줄리안 노트(Julian Nott)가 작곡을 맡았다. 그 곡들이 작품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연출가 구나르 칼손(Gunnar Karlsson)은 캐릭터와 스토리라인 양면에 강한 3D 캐리커처를 통해 침대의 공포를 보여준다. 배경은 종종 표현주의 미술풍으로 그려진다.

작은 유럽국가에서 국제적 합작 없이 이 같은 주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연출가와 투자자들의 만남의 장인 카툰 포럼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

European animation hiccup

European animation industry seems to suffer a kind of hiccup. It's no illness, industry is going strong but it has to adapt in the new reality. This new reality includes smaller budgets of tv-channels and a competition that is harder than ever.

After many years of growing production there is also more animation than ever on the market. New productions have to compete more often against those already made some years before. Distributors back catalogues are impressive.

The European animation industry gathered in its annual market Cartoon Forum this time in Italy, in a small town of Varese not far away from the mighty Alps mountains. 82 new projects were presented for the 108 broadcasters and 154 other investors. Figures are impressive: 503 hours of animation with a budget of 285 million euro.

The projects are from 14 different countries, Britain being again the leading one with 21 projects, followed by Italy with 17 projects and France with 16 projects.

Surprisingly Germany presents only six projects. The German animation market is at the moment more or less full, production has been too rapid in recent years. This has led to problems in some of the major production houses.

The half-hour or quarter-hour series are again the dominating format, but compared to former years the shorter format of 10 to 13 minutes has gained more ground.

Cheaper productions

The productions are smaller and also cheaper than in the last years Cartoon Forum in Wales, Britain. The calculated cost per minute is going down, in 2002 Forum it was 10,555 euro/minute, now it



Grubby Girls by the Norwegian Mikrofilm.

is 9,146 euro/minute.

Producers are beware of the worsening economy in the animation industry and try to play safe. Most of the projects presented are adventure and comedy aimed at children from 5 to 12.

Experiments for adult or narrow audiences are the field of smaller studios from the small countries.

The coming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with ten new member states in 2004 has already an effect; for the first time there are also projects from Poland and Slovakia.

Cartoon managing directors Corinne Jenart and Marc Wandeweyer are confirming the fact, that financing an animation series need more and more work: "Today, the task of raising finance is more diverse and more complicated than ever before, with broadcasters sometimes playing a lesser role than in the past".

They believe animation industry is adapting to this, but "All the financial partners must remain aware that cross-border co-production is still the strongest link in a very specialized cultural industry". And this is what Cartoon

Forum is for.

USA as the common nominator

The new animation projects presented offers a wide selection of themes, animation techniques and target groups. Most try, however, to walk on the middle of the road, cut off too strange and too national things in order to reach the widest possible international audience.

A funny detail in this ideologically pan-European gathering is the way to appeal wide European audience. The milieu of many series is often looking like the American towns and streets familiar for all Europeans from television, cinema and comics.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for Europe is the USA, it has really colonized our common visual subconscious.

Partly this happens due to the fact that US media companies like Cartoon Network are actively looking for a material also from European market. And if Americans are involved in financing the series, it has to look like America. Americans are not exactly globally famous for their broad multicultural understanding.

Cartoon Network has an amount of 500 million US dollars to co-produce non-US animation during the five years period of 2003-2007. In Europe their financial share of co-productions will be around 25 per cent, globally up to 30-40 percent.

Kung-fu chickens

One of the productions where

Tom by Andreas Hykade



Cartoon network is involved is Chopsocky Chooks by the British Ardman studios. "It is an action comedy based on characters", defines Cartoon network Europe's Finn Arnesen. "That makes it strong", he underlines.

Chopsocky Chooks are three kung-fu chickens, fighting constantly against evil Dr. Wasabi in a huge shopping center. Characters are caricature-like, and at least the pilot of this 3D series was really full of action with kung-fu.

The series should be universal, said producer Miles Bullough.

"There are shopping malls all over the world, and the humour in this series is raising from the characters."

That didn't convince all the listeners, in following discussion first person to ask a question wanted to know more detailed about the plots, too. Characters alone do not make a good series.

The animation work is distributed in several studios around the world and production cost for half hour is 380,000 euro.

Girls from Norway

Quite a different kind of project is Grubby Girls by the Norwegian Mikrofilm. It is a small company, more handicraft than industry, but due to this fact can offer interesting projects.

Grubby Girls is based on a comics by Inga Saetre presenting three girls discussing of all matters of life. Producer Lise Fearnley presented the idea of the series like this: "The issues presented in the series will not always go towards the obvious. However they will be clear."

In a way Grubby Girls has an atmosphere like Daniel Clowes' comics story Ghost World, young women facing the different wonders of everyday life.

Visually Grubby Girls looks like a diary, drawings are a bit amateurish, but at the same time also intimate. Due to the

strong and fitting dialogue and the idea the film looks, however, good.

Mikrofilm is brave enough to present a very unusual format, 26 episodes of 2 1/2 minutes each. But the series is aimed for adult audiences and fits well for magazine type of programmes.

Tom wants a sandwich

German Andreas Hykade is well known for his animation films like Ring of Fire (2000), which collected a lot of prizes on the festivals.

Now he is working with a highly original series Tom, four out of 26 five minutes parts are already made.

The basic story in every film is the same. Tom wants to eat a strawberry jam sandwich with honey and is off to get one. In his search he meets miller, bees, strawberry mouse and his mother.

It may look simple, but it works and is well thought. "Stories are always simple, but the more you see, the more complete this universe is coming", says the director himself. And this is true.

Even though the films are fully professional and can compete with any major production, everything is made by a small crew in one house in Stuttgart, Germany. Hykade likes to keep full control of the work he has written, designed and directed.

Teenager from Iceland

Good example how animation is

nowadays possible to do even in the small countries is the project Anna and the Moods by Icelandic company Caouz. Iceland has altogether only some 280 000 inhabitants and no tradition in animation industry.

Anna and the Moods is a 30 minutes tv-film about a girl reaching her teenage years. The most kind and cute Anna turns almost overnight a sinister teenager. Parents take her to Dr. Artmann, but even he has only one solution, parents must wait.

Behind the script is Sjón, a well known poet and writer in Iceland. He has also written Lars von Triers internationally known feature film Dancer in the Dark.

Sjón believes the story is universal: "Many of us has been like Anna, many of us has a sister like Anna, and many of us are even married to one who has been Anna."

The way director Gunnar Karlsson has chosen to show the horrors of teenage is strong 3D caricature, both in characters and in story line. Backgrounds are often like expressionistic art.

Without this kind of international links only few major animation productions would be possible in the smaller European countries.

And this is what cartoon Forum is for, a place for producers and financiers to meet. [A](#)